

송 년 사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 했던 임신년이 저물어 가고 새로운 도약과 희망찬 계유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간 학술진흥을 위하여 년6회의 학회지 발간을 년12회로, 매월 발간되는 논문지의 편수를 10편에서 13편내지 15편으로 증간 실시하여 명실상부한 국제 학회의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정보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우리나라 최초로 서울-동경 국제 영상 학술회의를 개최하였으며, ATM교환기술워크샵, 이동통신기술 세미나등 각종 세미나와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였으며, 또한 산.학.연 협동에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에는 특별회원업체의 도움으로 오랜 숙원이었던 본 학회 소유의 새로운 사무실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작년 11월에는 대전, 충남지부를 창립하여 현재 8개의 지부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본 학회는 13개의 연구회를 연구위원장 및 연구위원 중심의 독립 재산 운영 방식으로 연구회 활동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학술발표회, 워크샵, 세미나등의 학술활동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우리 학회의 회원은 4,500여명으로 작년보다 740여명이 증가하여 여타 학회와 비교할 때 눈부시게 발전하였고, 예산 규모도 5억원에 이르는 성장상을 이루었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회원의 회비 수입 중심으로 재정 자립 체제의 기틀을 마련하여 불과 18년이라는 짧은 역사를 가진 본 학회가 이처럼 놀라운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실은 역대 회장을 중심으로 모든 임원진과 회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국내의 통신환경의 변화와 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우리들에게 한층 새로운 기술 개척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2000년대의 정보 통신산업을 선도해가야 하는 우리 학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이에 차기 회장을 중심으로 학회가 더욱더 활성화되고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2년동안의 본 학회 회장 임기를 대과없이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유관기관과 선후배 및 동료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에 감사드리며, 계유년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과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